

## 스위스, 안정된 복지정책 위에 성숙된 국민 보건 의식

김 장 석 · 한국건강관리협회 홍보과장

**유**럽 선진국 국민건강증진사업 사례 시찰단인 우리 일행 33명은 1996년 7월 2일 오전 7월 30분,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에 집결했다.

우리 나라에서 보건의료정책 차원의 유럽 선진국 사례 시찰은 이번에 처음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우리 협회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만큼 시찰단 일행은 이번 여행에 어느 정도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시찰의 주요 목적은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사업 개발과 체계적 수행을 위해, 유럽 선진 5개국 보건의료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방향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찰하고 이를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협회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참고 혹은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었다.

일행이 탄 비행기는, 오전 10시 5분에 이륙해 11시간여 동안 9,300km를 날아 첫행선지인 스위스 취리히의 클로텐 공항(Flughafen Kloten)에 도착했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숙소로 가기 전에 우리는 현지 가이드

의 안내를 받아 취리히시에 있는 FIFA(국제축구연맹)를 방문하고 석양이 아름답다는 취리히호(湖)를 관광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키로 한 터라 FIFA의 방문은 아주 뜻깊게 느껴졌다.

취리히(Zürich)시는 인구 38만명의 스위스 최대의 도시로써 세계 경제, 특히 금융의 중추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세계의 금융과 부패 정치인들의 검은 돈이 많이 흘러드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스위스 국민들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며 강인한 실천력을 가졌다고 한다. 또 2만명당 1개 꼴로 있는 많은 도서관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 취리히 공과대학 등은 높은 정신문화 의식 수준을 말해주고 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한국산 자동차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향후 몇 년 내에 한국산 차가 일본을 앞지를 전망이라고 해 일행은 어깨가 우쭐해졌다.

한편 유럽에서의 첫 식사! 그러나 건조한 빵과 치즈, 우유, 그리고 고추 양념장 같이 매운 소스 등의 음식을 먹는

등 마는등 식사를 마친 후, 피벤픽호텔(Möven Pick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7월 3일, 일행은 스위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그루나우(Grunau)』로 향했다. 그루나우는 노인복지시설로 주로 60세 이상의 정년퇴직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시설 수용자 84명의 평균 연령은 86세로, 슈트즈 원장에 따르면 최 고령자가 103세였다.

이 시설이용자의 연령 제한은 남자 65세, 여자 62세 이상이며, 사용료는 유료이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고 사정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국고보조가 있다.

그루나우 소속 직원은 40명인데 주로 간호사·영양사·건강 관리 보조원 등 보건계통 공무원이며, 의사는 관할지역의 촉탁의사(가정예방의) 2명이 수시로 방문해 진찰과 상담을 해 주고 있다.

스위스 복지시설(양로원 등)의 역사는 10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루나우 양로원은 항상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나 모든 관련 정책의 입안도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 감명 깊었던 것은 스위스 국민들의 보건의식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 같은

고 있다.

1개 그루나우의 연 예산은 200만 스위스프랑으로, 부족한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다. 시설거주 노인들은 자체 축탁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원하면 주치의를 선정하여 진료받을 수도 있다. 또 시설 노인들은 여행이나 휴가 등을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따라 즐길 수 있으며, 시설 내의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즐기며 생활하고 있었다.

노인 1명당 약 6평 정도의 주거 공간이 주어지고, 부부가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좀더 큰 방이 배정된다.

스위스의 모든 직장인은, 평소 봉급에서 공제·적립된 연금으로 그루나우 같은 양로시설에서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와는 보건 의료 전달체계면에서 많이 달랐는데, '가정의(家庭醫)와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훌륭한 선진 보건 사업 사례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 나라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보장 사업 모델로서의

보건행위를 정부에 의지하기보다는 평소 스스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고히 자리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루나우 시찰을 마치고 일행은 알프스 영봉인 리기쿨름(RIGI CULM, 1,797m)을 등정했다. 알프스 산맥은 지중해에서 시작하여 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독일 영토를 지나 오스트리아에 이르는 장장 1,200km에 이른다. 특히 리기쿨름까지 올라가는 툴나바퀴식 산악 등정열차-1860년에 처음 개설되었다-는 한쪽의 그림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한 후 루체른(Luzern)시로 향했다.

중세의 체취가 물씬 풍기는 루체른은 윌리엄텔의 전설이 유명한 도시이다. 특히 오른쪽 기슭의 구시가지에는, 바이런·바그너 등이 여행하며 사색에 잠기던 자취가 그대로 있는 듯했다. 도시 한가운데로 로이스(Reuss)강이 흐르고 있고, 중심가엔 1933년에 세워진 세계 최고(最古)의 목조다리 카펠교(Kapellbrücke)가 있다. 기와지붕이 있는 목조교로 길이가 220m 정도 되는데 천장에는 당시의 중요한 사건이나 루체른 수호

**(시찰단 명단)**

- 보건복지부 강기후 서기관, 노희원씨
- 국립보건원 김주성 과장, 황금복 과장
- 서울시 최행지 사무관
- 서울 중구 보건소 김규성 계장
- 부산 기장군 보건소 함영규 계장
- 부산광역시 신수기 계장
- 인천광역시 강인식 과장, 천정목씨
- 광주광역시 노광철씨
- 광주 광산구 보건소 장정자 계장
- 대전광역시 김현근 계장, 김희수 계장
- 경기도 방성남씨
- 경기 구리보건소 김기명씨
- 강원도 춘천시 보건소 김명희씨
- 강원도 양양군 보건소 이재자씨
- 충청북도 흥한포 사무관
- 청주시 상당구 보건소 황건서 계장
- 충청남도 방희문 사무관
- 충남 아산시 보건소 이은목 과장
- 전라남도 순천시 보건소 서초용 소장
- 전남 고흥군 보건소·실영희씨
- 경상북도 이재철씨
- 경북 구미시 보건소 손영배 계장
- 경상남도 전용자 사무관
- 경남 창원시 보건소 박정희 계장
- 제주도 남제주군 보건소 김인영 계장
- 보건협회 정문희씨(한양대 교수)
- 대한산업보건협회 이명숙 보건관리부장
- 한국건강관리협회 김장석 홍보과장, 한세희 대리

성인의 생애 등이 그려져 있다.

스위스는 사상가 루소, 종교 개혁가 쾰빙글리와 장칼빈, 국제적십자의 창시자 앙리 듀낭,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교육자 페스탈로찌 등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위인들이 많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3대 인물은 건국의 아버지 빌헬름 텔, 교육자 페스탈로찌, 평화의 아버지 앙리 듀낭이라고 한다.

그러나 스위스인들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아름다운 자연도, 높은 소득도, 정밀 시계공업도 아닌,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참다운 민주주의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이다.(계속) **Z**